



사랑·꿈·믿음이 있는  
즐겁고 신나는  
행복한 용안교육

# 용안 어울림 행복소식

<http://www.yongan.es.kr> (☎ 861-3610)

발행인: 교장장 미  
편집인: 교감 이승용  
엮은이: 실무사 박은정

발행일: 2023. 1. 5.

## 학년말 겨울방학 안내

- ▣ 방학기간 : 2023.1.7.(토)~2023.3.1.(수)
- ▣ 방과후학교(돌봄): 2.6.(월)~2.17.(금)
- 시간-9:40~12:30 (통학버스 운영, 점심제공)
- ▣ 개학 하는 날 : 2023.3.2.(목)

### ◆ 이것만은 지켜요

1. 코로나19 예방수칙 지키기  
(마스크쓰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2. 날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3. 방학계획에 의해 규칙적인 생활 실천하기
4. 몸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기
5. 외출할 때는 부모님께 꼭 허락받기
6.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성폭력주의, 학교폭력주의, 차조심, 겨울 놀이 등)
7. 스마트폰/컴퓨터는 정해진 시간만 하기
8. 1일 1선행 실천 및 예절생활 하기
9. 독서 많이 하기
10.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기

즐거운 겨울 방학을 맞아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가정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뜻있고 보람 있는 방학을 보내고, 새학년을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고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스칸디아모스 액자 꾸미기 1학년 작품



스노우볼 카드 만들기

## ♣ 숲해설사와 함께하는 숲 놀이

10월 7일 금요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숲해설사와 함께하는 숲 놀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음열기 활동으로 '숲속 라디오', 본수업으로 가을 열매와 씨앗을 찾아서 관찰하기, 도꼬마리 열매 특징 및 과녁맞히기 놀이, 거미 관찰하기, 남천 열매와 잎으로 폭죽 놀이하기 등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자연 변화를 관찰하고 숲 놀이를 통해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근두근 세계여행」 겨울통합교과 학습활동  
나만의 인디언 집 ‘티피’ 만들기



2학년 이윤서



2학년 최강욱

↳ 마음이 예뻐지는 동시 쓰기

산 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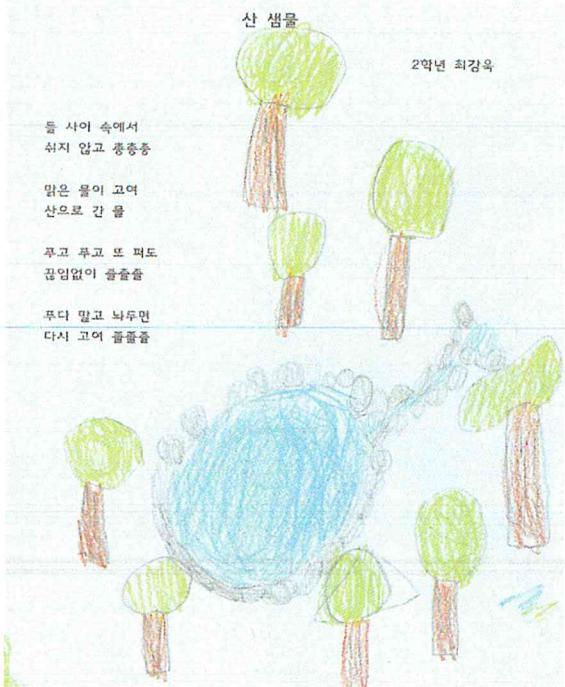
2학년 최강욱

들 사이 속에서  
쉬지 않고 풍풍풍

맑은 물이 고여  
산으로 간 물

푸고 푸고 또 퍼도  
끊임없이 흘흘흘

푸다 말고 놔두면  
다시 고여 흘흘흘



길 잃은 땅콩

2학년 이윤서

안방 방바닥에  
땅콩 한 개

이쪽으로 구르고  
저쪽으로 구르고  
그러다 보니  
길을 잊었다.

울려고  
얼굴이 뻗개졌다.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이 학년별로 9월 셋째주에 있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 및 성태도를 형성, 성적주체로서 자기보호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성 인권 의식 함양, 성희롱·성폭력 예방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기대해 봅니다.



◆ 교직원 및 전교생 심폐소생술 교육

9월 30일(금) 교직원 및 전교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이나 응급 상황에서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활용법 등을 대한 적십자사 전북지부 강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골든 타임에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자심감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 뉴스포츠 대회

11월 10일(목) **뉴스포츠 대회**가 있었습니다. 스포츠클럽 및 체육교과 시간에 익힌 게임활동과 경쟁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게임 활동을 하였습니다. 1,2학년은 짐볼 피구, 짹줄넘기, 바운스라켓, 자이언트타겟 3,4학년은 인디아카 배구, 변형피구 5,6학년은 인디아카 배구, 플로어 컬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함께 참여하여, 규칙을 지키고, 승패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며 규칙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 4학년 우리들의 겨울 일기

### 11월 29일(화) 전시회

### 4학년 김아름

오늘 전시회를 했다.  
선생님은 말했다.  
“편지를 써서 붙일 거야.”  
나는 윤아한테 썼다.  
선생님은 또 말했다.  
“선생님들한테도 써 줘.”  
나는 선생님한테 두 번 편지를 썼다. 선생님은 또 말했다.  
“여기 아름이 꺼, 진주  
꺼에도 좀 써주면 좋겠네.”  
나는 내 작품을 보고 생각했다.  
‘제목이 예쁘다.’  
나는 언니들한테도 써 줬다.

### 11월 10일(목) 전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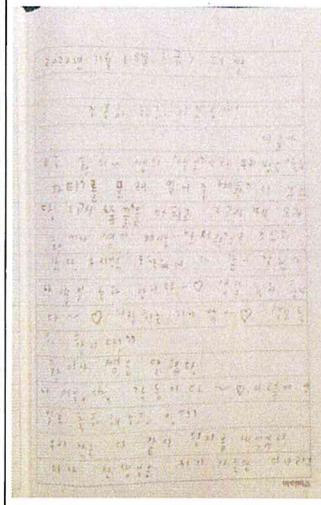
### 4학년 김영민

오늘 2교시 때 전쟁피구를 했다.  
처음에는 3학년 호연이 빼고 모두 들어갔다. 내가 말했다.  
“아래로 써게 던져.”  
전부 다 맞혔다. 그다음 우리가 들어갔다. 근데 4명이라서 빨리 죽었다. 3학년이 많아서 맞히기 쉬웠다. 우리가 또 들어갔다. 내가 말했다.  
“망했다!”  
근데 이번에는 오래 살아남았다.  
끝나고 여자랑 남자랑 불었다. 처음에는 남자 팀이 먼저 들어갔다. 오래 살아남았다. 여자팀이 들어갔다. 끝내고 우리가 또 들어갔다. 피하다가 죽었다. 재미있었다.

## ♡ 4학년 우리들의 겨울 일기

### 11월 18일(금) 조용히 해이것들아

### 4학년 이윤아



오늘 황미나 쌤의 ‘생일’이다. 우리 반은 축하파티를 몰래 열어 줄 계획이 있었다. 1교시 ‘숲꿈’을 마치고 2교시 때에 몰래 황미나 쌤이 계시는 도서관으로 조심히 갔다. 우리 반은 도착해서 다 같이 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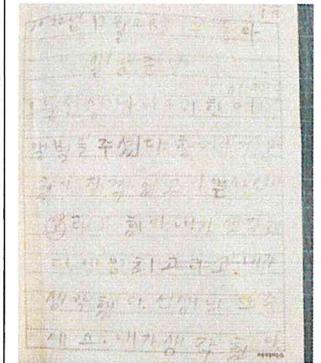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나 쌤, 생일 축하합니다!”  
황미나 쌤은 맘했다.

“어우! 야, 감동이다. 이렇게 생일도 축하해주고,”

우리 반은 다 같이 편지를 내밀었다. 미나 선생님은 자기 가족만 미나라고 불러준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런 일도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미나 선생님이 웃으니까 마음이 뛰듯했다. 그리고 영민이랑 태윤이가 같 때 시끄럽게 해서 깜짝 파티는 망하는 줄 알았다.

### 12월 18일(수) 앨범 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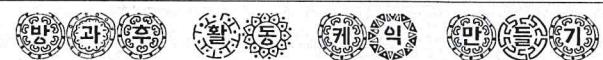
### 4학년 이태윤



오늘 선생님이 우리한테 앨범을 주셨다. 할머니가 맘했다. 잘 찍었고 이쁜 사진이라고 했다. 나는 생각했다. 앨범 최고라고.

나는 또 생각했다. 선생님 또 주세요.

옛날이 그립다. 옛날이 왜 그립나면 방방도 타고 간식도 주고 같이 놀러 가고 해서 옛날이 그립다.



12월 2일에는 방과후 활동으로 **케익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생일 때마다 사먹는 케익을 우리 학생들이 크림을 발라가며, 장식을 하며 손수 만들어서 먹어 보는게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 케익 만들기 모습





### ♥ 6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실시

지난 11월 8일(화) 이른 아침, 6학년 삼총사들이 익산역에 모였습니다.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이른 시간임에도 졸린 기색도 없이 기대에 찬 모습으로 KTX기차에 탑승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많은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포기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 속에 철저한 방역과 감염병 예방에 힘써 조심스럽게 다녀오는 것으로 어렵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1시간 30분 남짓의 짧은 시간 만에 도착한 여수는 익산보다 조금은 더 따뜻한 날씨와 맑은 하늘이 남해 바다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수역 근처의 여수엑스포 안에 전시관 중 하나인 아르떼뮤지엄으로 향합니다. 아르떼뮤지엄은 자연을 주제로 12개의 다양한 미디어아트전시관으로 시각적 강렬함과 더불어 감각적인 음향과 향기까지 있는 처음 경험해보는 독특한 전시관이었습니다. 예쁜 색깔의 배경과 멋진 조명의 도움으로 인생 사진들을 획득하고 다음 코스인 여수 아쿠아리움으로 향합니다. 그 곳에서 여러 수중 생물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희귀한 벨루가(흰 돌고래) 앞에서 멋진 사진도 남깁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와 간식도 먹고, 가족에게 줄 기념품도 구입합니다.

여수 앞 바다를 체감 시속 100km로 질주하는 모터보트 위에서 삼총사들은 두 팔을 들고 괴성을 지르며 광란의 질주(?)를 즐겼습니다.

짧은 20여분의 질주 후에 한 번 더 타면 안되느냐며 담임선생님을 대략 난감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맛있는 저녁식사까지 마치고 피곤하지만 즐거운 표정으로 익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6학년으로서 유일하지만 큰 특권인 이번 테마식 현장학습을 통해 이 세 학생들이 초등학생 시절의 기억에 남는 멋진 추억이 마음 한 편에 두둑이 쌓였기를 바래봅니다.



## ♡ 2022학년도 학습발표회

10월 28일, 그 동안 학생들이 수업시간과 방과후 시간에 배우고 익힌 악기연주, 영어연극, 무용, 사물놀이 등을 보여드리는 **학습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학습발표회를 통해 학부모님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다양한 배움과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며 자녀들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내년에도 더욱 풍성한 학습발표회가 되겠습니다.



## ♡ 학습발표회 이모저모

